

영웅의 시간/영토 그래프로 본 『조웅전』*

－한국의 고전구조 시론 1－

김 용 철**

- I. 들어가기
- II. 영웅의 시간 그래프와 영웅의 특질
- III. 영웅의 영토그래프와 인물 특질
- IV. 나가기

• 국문초록

영웅의 몰락과 회복의 과정을 소설화한 영웅소설 『조웅전』은 사건이 전개되고 인물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따라서 그래프 위에 선과 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그래프의 모습은 “영웅의 시간”과 “영웅의 영토”라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조웅전』의 그래프는 왼쪽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오른쪽에서 상승하는 곡선을 보이고 있다. 이때 영웅과 천하국가는 같이 몰락하나 영웅이 준비하는 동안 천하국가의 몰락을 10년간 유예함으로써 영웅의 구원을 기다리게 한다.

이 “영웅의 시간” 그래프는 고난형 영웅, 준비형 영웅, 구원자형 영웅을 차례로 나타내며 이중 천하국가를 구원하는 구원자형 영웅의 활약이 기본이 된다. 또한 “영웅의 시간”은 몰락, 고난, 준비, 회복 및 복수, 누림과 평화의 시간이라는 5단계로 나타난다.

이 “영웅의 시간” 그래프는 동시에 “영웅의 영토” 그래프이기도 하다. 가운데를 지나가는 선 아래 부분이 영웅 조웅의 영토이다. 이 “영웅의 영토”는 영웅의 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비례하며 “영웅의 몸”을 나타낸다. “영웅의 몸”은 영웅의 주체적 힘과 객관적 힘의 불일치와 일치의 과정을 두 차례 반복하며 작품을 이끌어가고 있다.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7-AM0059).

**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이러한 “영웅의 영토” 그래프를 타고 등장인물들은 제 위치에 맞게 등장한다. 이때 이 그래프를 타고 아버지의 부재, 상하층 인물의 등장, 숨어있는 인물과 드러난 인물의 교차 등장 등의 과정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작품은 자신의 편폭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

• 주제어

영웅소설, 조용전, 영웅, 영웅의 시간, 영웅의 영토, 그래프, 구원자형 영웅, 영웅의 몸, 아버지의 부재, 드러남과 숨음

I. 들어가기

이 글은 『조웅전』에 나타난 “영웅의 시간”과 “영웅의 영토”를 그래프 위에서 구현해 보고 그것과 결합한 영웅 조웅의 영웅의 특질과 인물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장편소설 『조웅전』이 채용하고 있는 다양한 서사방법과 작중 인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조웅전』이 속해있는 영웅소설은 국문학 분야에서 가장 연구가 깊이 되어 있는 고전소설 유형이다. 영웅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 가운데 하나인 『조웅전』은 영웅소설을 논의하는 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으며 영웅소설의 이론이 성립되는데도 기여하였다.¹⁾ 『조웅전』에 대해서는 구조, 유형, 문화콘텐츠²⁾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조웅전』을 좀더 찬찬히 잘 읽어보자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작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시간의 흐름을 탐색하는 것이다. 『조웅전』은 영웅소설이므로 작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시간은 물론 영웅 조웅의 시간이다. 조웅의 일생 시간 곧 “영웅의 시간”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일생의 각 시기가 갖는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영웅 조웅의 시간을 천하국가의 시간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영웅의 시간 그래프를 다시 “영웅의 영토”라는 시각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영웅소설인 『조웅전』은 천하를 두고 벌인 한판 싸움이기 때문에 영웅이 가진 힘과 사회적 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웅의 영토”란 작품 내에서 영웅이 가진 세력의 총합이다. “영웅의 영토”가 어느 만큼인가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과 만나는 인물이 결정된다.

이 글은 『조웅전』이라는 작품의 특성을 그래프라는 면과 선으로 이루어진 이차원적 위상기하학의 형태로 나타내 보려는 것이다. 이것은 선과 면과 같이 이차원적

-
- 1) 이 글에서는 『조웅전』의 연구사에 대해 따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대신에 필자가 주로 참고한 논문 몇 개를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한다.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출판부, 1985.; 조시중, 『조웅전의 작품구조와 그 수용적 의미』,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7.; 전성운, 『조선 후기 장편국문소설의 조망』, 보고서, 2002.; 이강엽, 『군담소설 서사구조론의 전개와 연구방향』, 『한국고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새문사, 2005.
 - 2) 김현양, 『조선조 후기의 군담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4.; 임성래, 『조선 후기의 대중소설』, 태학사, 1995.;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이용진, 『고전소설 조웅전의 에듀게임(Edu-game)화 방안 연구』,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이승희, 『조웅전과의 만남과 상상력 교육』,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안기수, 『영웅소설 조웅전의 게임 스토리텔링 연구』, 『어문논집』 46, 중앙어문학회, 2011.

평면 위에 어떤 특정한 지식의 장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필자의 오랜 욕망에 기초하고 있다.

전통시대에 이런 것은 지식을 다루는 일반화된 방법이였다. 이를테면 『성학십도』에서 우주에서 인간에 이르는 세계 전체에 대한 지식을 단순한 10개의 그림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욕망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이것을 “한국의 고전구조”라 이름짓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한국의 전통시대에 지식을 다루던 방법을 새롭게 채용하였기에 이렇게 이름붙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시간이라는 선과 영토라는 면의 측면을 아우르면서 진행될 것이다.³⁾ 하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조웅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서사구조와 작중인물의 질서이다.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작품을 읽어보려는 목적은 『조웅전』이 영웅소설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작품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조웅전』 내부에는 그것을 읽은 독자들의 세계관에 맞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시기 동안 조선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추구하던 그 무엇일 것이다. 한 마디로 이 작품은 가장 많이 읽힌 작품인 만큼 조선후기와 일제시대 민중 전체의 꿈과 희망을 대변하였다 말해도 될 것이다.⁴⁾ 이 꿈과 희망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이 글의 목적 중 하나이다.

II. 영웅의 시간 그래프와 영웅의 특질

1. 영웅의 시간 그래프

그럼 『조웅전』에 나타난 영웅의 시간을 찬찬히 따져보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일생을 다룬 서사이므로 『조웅전』을 다루면서 영웅 조웅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시 한번 따져보면 『조웅전』에는 영웅 조웅 말고도 여러 시간들이 얽혀있다. 작품 속에는 조웅

3) 이 글에서 대본으로 삼은 『조웅전』 이본은 완판 계묘본이다. 길이가 경판에 대해 길고 다양한 인물군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조웅전』에는 독자의 시간도 얽혀 들어가 있다. 『조웅전』은 가장 인기있는 영웅소설이었다. “할머니 『조웅전』에 잠드시던 그날밤도”라는 이호우 시인의 시조에서 보듯이 독자는 『조웅전』 끝 조웅의 일생에서 자신의 일생과의 특별한 일치점을 찾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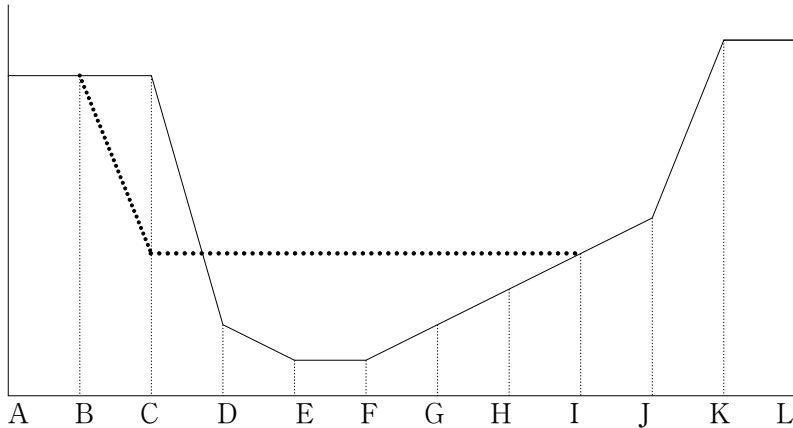
의 시간, 국가의 시간, 여러 등장인물들의 시간들이 얽혀 복잡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그중 작품의 핵심에 해당하는 영웅 조웅의 시간의 선은 의외에도 단순하다. 조웅이 고난을 당하고 그 사이 국가도 고난을 겪으나 조웅이 자신의 고난 해결과 국가의 고난 해결을 일치시켜 해결함으로써 극복한다는 것이다. 이 기본 시간에 다른 여러 인물들의 일생과 시간들이 서로 얽혀들어가서 『조웅전』이라는 작품 전체가 짜여진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웅전』의 시간 배치를 “영웅의 시간”이라 이름짓고 살펴보고자 한다.

『조웅전』을 이야기하려면 이른바 “영웅의 일생” 구조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조동일은 이 간단한 구조로 건국신화에서 영웅소설에 이르는 갖가지 서사체들을 성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영웅의 일생” 구조로는 영웅소설인 『조웅전』을 재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영웅의 일생” 구조에다 여러 가지 등장인물과 사건들을 붙여넣으면 영웅소설인 『조웅전』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아마 “영웅의 일생” 구조가 전형적으로 재구할 수 있는 서사체는 동명왕 신화 정도일 것이다.

영웅소설에는 고귀한 혈통, 신이한 탄생, 첫 번째 고난 등이 설령 등장한다 하더라도 한 페이지 정도에서 끝난다. 구원자, 양육자를 통해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작품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나머지 부분 곧 영웅의 본격적 활약 부분에서 “영웅의 일생” 구조는 구조로써 무력하기만 하다. 이 글에서 『조웅전』의 시간을 통해 작품을 살펴보려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조웅전』의 시간을 그래프로 그려서 제시하고 이 그래프를 보면서 『조웅전』의 영웅의 시간에 대해 설명해 보기로 한다. 『조웅전』 내지 영웅소설은 영웅의 일생이 예시하는 바 출생부터 고난의 극복까지 단선적인 일생의 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조동일의 주장과는 달리 『조웅전』의 영웅의 시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이 두 갈래의 시간이 나누어졌다가 합쳐지는 것이 『조웅전』에 나타난 영웅의 시간이다.



그래프에서 A-B-C-D-E-F-G-H-I-J-K-L로 이어지는 시간은 조웅의 시간이다. 그에 비해 A-B-C-I-J-K-L로 이어지는 시간은 천하 내지 국가의 시간이다. 조웅의 시간과 천하국가의 시간은 B에서 갈라졌다 I에서 합쳐진다.

A-B-C에서 영웅인 조웅은 몰락한다. 그보다 먼저 B에서 천하국가는 역신 이두병의 찬탈에 의해 몰락한다. 이두병은 찬탈 후 송태자를 태산부 계량도에 귀양보낸다. 이어 조웅은 이두병을 비난하는 벽서를 붙여 수배령이 떨어져 도망하게 된다. 송태자와 조웅은 명맥만 겨우 붙어있는 어린아이들이다. 그 결과 천하국가는 명맥만 겨우 붙어 멸망을 면하고 있다. 영웅 조웅이 영웅이 될 때 천하국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시작될 것이다.

C-D에서 왕부인과 조웅은 仙童의 구원을 받는다. 이어 D-E에서 여인의 구원을 받아 1년동안 小安의 시기를 가진다. 하지만 여인의 친척 오라비가 왕부인을 탐함으로 인해 그를 피해 길을 떠난다. E-F에서 조웅과 왕부인은 가장 하층까지 떨어진다. 그들은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결국 여승과 상좌로 변장하고 다니며 걸식으로 탁발하여 잔명을 보존한다. C-F에서 왕부인과 조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작품 전체로 보면 미래를 위한 생존이겠지만 그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한가한 생각을 할 수 없다. F에서 월경대사를 만남으로 그들의 고난은 끝이 난다.

F-H구간은 영웅 조웅이 영웅으로 태어나는 준비의 시간이다. 그는 F-G에서 월경대사에게 도술을 전수받고 다시 G-H에서 철관도사를 만나 도술과 검술을 연마한다. 용마도 얻고 장소저를 만나 인연도 맺는다.

H-I까지 영웅 조웅은 영웅으로서의 1단계 과업을 수행한다. 조웅은 먼저 서번의 침입을 받은 위국을 구원한다. 이어서 서번의 영토를 통과하여 태산부 계량도에 가서 사약을 받고 죽기 직전의 송태자를 구원한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서번국의 방해물을 물리치고 위국으로 귀환한다. 요컨대 조웅은 위국을 구원함으로써 천하국가를 구원할 근거지를 확보한다. 이어서 송태자를 구원함으로써 근거지는 명분있는 정권의 맹아 형태가 된다.

이제 정통 황제는 이두병이 아니라 송태자이며 천하국가의 중심은 이두병이 있는 황성이 아니라 송태자가 있는 위국이 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나머지 지역을 흡수함으로써 영웅으로서의 조웅의 과업은 완수되는 것이다.

I-J에서 조웅은 왕시랑, 강백 등 주요 동조자를 규합하여 이두병 정권을 전복할 군사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어 J-K에서 이두병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여 그를 사로잡는다. 조웅은 먼저 장덕, 최탄, 일대 삼형제를 격파한다. 결국 황성에서는 신하들이 이두병을 결박하여 항복한다. 영웅 조웅이 천하국가를 구원하여 영웅이 되는 것이다. K-L에서 천하가 평화를 되찾고 영웅 조웅은 서번왕이 되어 영웅으로서의 천하국가 내에서의 지위를 얻는다.

이것을 좀더 간추려 말해보자면 A-C에서 몰락한 조웅은 C-F에서 아직 영웅의 특질을 갖지 못한 연약한 어린나이로 하층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는다. 그러다가 F-H까지 사이에 영웅으로서의 특질을 갖추며 성장해 간다. H-I까지 영웅 조웅은 천하를 구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서번을 물리치고 위를 구원하고 결국 새로운 천하의 핵심이 될 송태자를 구원한다. 이어서 I-K에서 영웅인 조웅은 본격적으로 천하를 구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에 들어가서 구원을 완료한다. 이후 K-L에서 행복하게 산다.

이 『조웅전』의 시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작품 내적 장치의 백미는 조웅이라는 영웅의 시간과 천하 국가의 시간을 분리시켰다 다시 결합시켰다는 점이다. 이 시간의 분리 장치를 통해 천하 국가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 A-C지점에서 조웅은 승상 조정인의 아들에서 온천하에 체포령이 떨어진 아홉살의 무력한 어린아이로 전락한다. C-F에서 고난과 구원의 과정을 거쳐 F-H에서 이 어린아이는 힘을 길러 영웅의 특질을 구비하게 된다. 한편 천하국가는 B에서 몰락하면서 B-I에서 간신히 송태자라는 명맥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천하국가는 I에서 영웅의 준비를 마친 조웅과 만나 구원받는다.

쉽게 말해 『조웅전』은 A-B-C-D-E-F-G-H-I를 통해 조웅이라는 영웅을 몰락시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천하를 구원할 영웅으로 ‘준비’시켰다가 A-B-C-I에서 몰락하고 멸망 직전까지 간 천하국을 구원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웅전』의 시간이 영웅 조웅의 시간과 천하국의 시간을 나누었다가 다시 합치도록 만든 이유이다.

『조웅전』은 조웅과 천하국을 거의 동시에 몰락하게 만든다. 하지만 천하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명맥은 남겨두었다가 다시 조웅으로 구원하도록 만든다. 쉽게 말해 조웅이라는 영웅을 영웅으로 준비시키는 동안 천하국의 멸망을 잠깐 늦추는 것이다. 그 시간은 대략 10년 사이인데 이 10년의 멸망 유예기간이 천하를 멸망에서 구원하며 동시에 조웅을 영웅으로 만들며 『조웅전』을 영웅소설로 만드는 것이다.

보고있노라면 기가 막히게 짜여진 이 간단한 두 가지 시간의 분리와 결합 장치가 바로 『조웅전』을 넘어서서 영웅소설 전반을 떠받치는 기본 시간 장치임은 당연하다. “영웅의 일생” 구조가 영웅소설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것은 그것이 영웅의 일생만을 다룬 단선적 시간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천손족인 주몽이 고난을 겪다가 결국 고구려를 창건한 건국신화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고난을 극복한 영웅이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소설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이다.

2. 영웅의 특질

그럼 이어서 이 시간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한다. 이것은 그래프 중간을 관통하고 있는 선이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선은 작품이 흐르고 있는 현장 다시 말해 작품이 형상화되고 있는 장소이다. 이 선을 따라 인물들이 등장하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영웅이 영웅으로 활약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영웅의 시간 그래프를 들여다보면 영웅소설의 창작자들이 애써 만들어낸 여러 가지 효과적인 장치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조웅은 어떤 영웅의 특질을 구비한 영웅인가와 『조웅전』에서 영웅의 시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각 단계마다 어떤 영웅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는가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영웅 조웅은 어떤 영웅적 특질을 갖춘 영웅인가 이다. 영웅 조웅은 시간에 따라 성장하므로 전반부와 후반부의 시간에서 나타나는 영웅으로서의 특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조웅의 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왼쪽에서는 아래로 내려왔다가 중간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 각 단계마다 조웅은 각기 다른 영웅의 특질을 구현하고 있다.

먼저 조웅의 시간에서 A-B-C-D-E-F를 거치면서 조웅은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영웅으로 성장해가는 “고난형 영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세상 안에 있으면서 몰락과 고난의 시간을 견디어 낸다. 이점은 “영웅의 일생” 구조에서 고귀한 혈통과 신이한 탄생, 양육자·구원자 등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의미가 축소되었던 부분이다.

쉽게 말해 조웅은 하층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영웅 내지 의사영웅들의 경험을 담을 수 있는 장치들을 이 단계에서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층체험은 영웅이 하층민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므로 하층민을 위한 일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영웅소설 중 많은 경우가 하층영웅의 성격을 갖는 것을 바로 이 때문이다.⁵⁾

다음으로 F-G-H에서 조웅은 “준비형 영웅”의 특질을 보인다. 특히 이 시기 그는 세상안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 세상을 이길 힘을 기르는 시간을 갖는다. 이점 역시 기존 “영웅의 일생” 구조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조웅은 세상 밖의 인물들과 교류하면서 그 자신이 세상 밖의 인물이 된다. 하지만 세상 밖에 있음으로 해서 영웅은 오히려 세상을 구원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H-I-J-K-L을 거치면서 조웅은 멸망 내지 멸망 직전의 천하를 구원하는 “구원자형 영웅”이 된다. 조웅은 다시 세상 안으로 진입한다. 이점 역시 “영웅의 일생” 구조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이다. 『조웅전』 내지 영웅소설이 출현한 조선 후기는 “구원자” 내지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가 범람하던 시대였다. 정감록이나 군도담, 아기장수 전설에서 나타나듯이 세상을 구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어느 날엔가 문득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존재를 이 시대가 목마르게 찾고 있었는지까지는 확실치 않으나 마치 다반사처럼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향유하고 있었다. 조웅이 천하국가를 구원하는 모습은 이러한 당대에 범람하던 구원자의 한 변형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셋 중에 구원자형 영웅이 『조웅전』의 영웅의 특질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영웅이다. 다시 말해 영웅 조웅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영웅인 것이다. 세상을 구원

5)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맹자가 말한 간단한 정식이 있는 바 영웅 조웅은 바로 맹자의 언급의 구체적 실현태라고 할 수 있다. “天將降大任於斯人也，必先勞其心志，苦其筋骨，餓其體膚，窮乏其身行，拂亂其所爲。是故，動心忍性，增益其所不能。” [告子章句] 下

하기 위해 영웅소설 『조웅전』은 주인공 조웅을 몰락시켜 하층에서 고생하게 만들고 세상 밖으로까지 내보내 준비하게 한 다음 세상을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점 역시 “영웅의 일생” 구조에서 의미가 축소되었던 부분이다.

둘째, 『조웅전』에서 영웅의 시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각 단계마다 어떤 영웅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다. 이 시간 그래프는 영웅의 각 시간 단계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시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영웅의 성격도 서로 다르다. 여기에서는 시간단계마다 달라지는 시간과 영웅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어떤 한 단계에서 멈추어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기로 한다.

먼저 1단계 A-B-C는 영웅의 몰락 전 시간이다. 이때 영웅은 아직 영웅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웅이기도 하다. 이 말은 앞으로 영웅이 될 싹을 포지하고 있는, 하지만 아직 발현되지 못한 영웅이다. 이 단계에서 고난을 겪지 않고 자라나면 영웅은 그저 권문세가의 한 일원으로 되며 만약 외부의 폭압에 의해 꺾어버리면 영웅은 아기장수가 된다.

2단계 C-D-E-F는 고난의 시간이다. 이때 영웅은 그저 어린 거지에 지나지 않는다. 영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한몸 지킬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조차 자각할 수 없다.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영웅은 그저 하나의 거지로 끝날 것이다. 만약 영웅의 힘이 발현되지만 이 상태로 계속 남게 되면 그는 거지패 속에 자신을 숨긴 강림도령이나 풍진팔선과 같은 풍진영웅이 될 것이다.

3단계 F-G-H는 준비의 시간이다. 이때 영웅은 영웅으로서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그는 오히려 세상 밖으로 나간다. 이제 영웅은 자신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 그리고 세상은 영웅으로서의 그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세상이 평화로워서 다시 말해 이두병이 태평시대를 열었다면 영웅은 세상밖에 머물게 된다. 다시 말해 이 단계에서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난세의 “때”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세외영웅이 된다. 아마 철관도사나 일대 삼형제의 스승같은 사람이 세외영웅일 것이다. 일대 삼형제도 그들의 “때”가 아니라는 스승의 말을 듣고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세외영웅이 되었을 것이다.

4단계 H-I-J-K는 회복의 시간이자 복수의 시간이다. 영웅은 자신이 1단계에서 가졌던 것을 회복한다. 동시에 자신을 몰락시키고 천하국가를 몰락시킨 이두병에

게 복수한다. 이때 영웅이 의존하는 방법은 힘의 직접 행사인 전쟁이다. 따라서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쟁영웅이다. 하지만 그가 전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획득하는 모습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영웅이자 나라를 구원하는 구국영웅이다.

4단계는 다시 세 단계로 나뉜다. 4-1단계 H-I 전반부는 서번을 굴복시키고 위국을 구원하여 거점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4-2단계 H-I 후반부는 다시 서번을 굴복시키고 송태자를 구원하여 차기 천하의 맹아 형태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4-3단계 I-J-K는 이두병 정권에 대한 직접 공격에 나서 그를 분쇄하고 천하를 되찾는 복수의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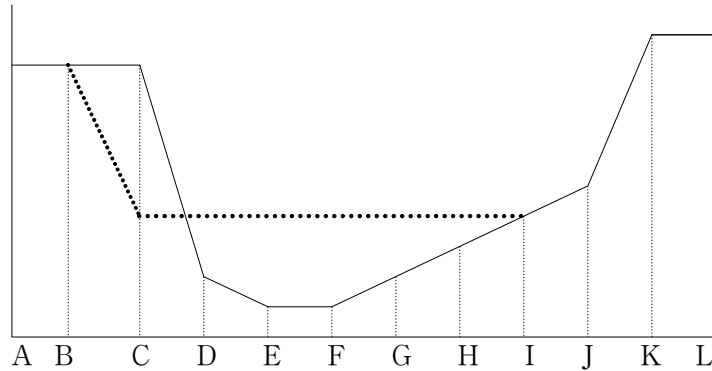
5단계 K-L는 누림의 시간이다. 하지만 이 단계는 다시 지킴의 시간이자 평화의 시간이다. 이제 서번왕이 된 영웅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공훈을 통해 획득한 것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때의 누림은 그냥 부귀영화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질서를 지키는 시간이며 동시에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는 시간이다. 이때 영웅은 干城의 영웅이 된다. 그는 서번 땅을 통치하면서 외부 오랑캐의 침입을 막고 국경을 평화롭게 지키는 것이다. 만약 영웅이 조정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면 천자보다 더한 위세를 가진 권신이 되어 제2의 이두병이 될 수도 있다.

III. 영웅의 영토그래프와 인물 특질

앞절에서 “영웅의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 시간 그래프가 각 단계마다 보여주는 영웅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절에서는 영웅의 시간 그래프가 보여주는 位相 정보에 주목하여 그래프 상에서 “영웅의 영토”와 작중인물의 질서를 찾아보기로 한다. 이때 “영웅의 시간” 그래프는 “영웅의 영토” 그래프가 된다.

1. 영웅의 영토 그래프

먼저 영웅의 시간 그래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한다.



먼저 그래프 상에서 중심이 되는 선의 위와 아래의 여백들은 혹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기로 한다. 필자는 그것을 “영웅의 영토”라는 말로 설명하고자 한다. “영웅의 영토”란 말 그대로 영웅이 소유한 땅을 가리킨다. 작품의 시작인 A-C나 끝인 K-L에서 영웅 조웅은 말 그대로 천하 모두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에 작품 중간인 D-G 사이에서 영웅 조웅은 천하의 가장 밑바닥을 헤매고 있거나 아예 세외로 숨어버려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선의 아랫부분만이 영웅 조웅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영토이자 발 딛고 있는 터전인 것이다. 반면에 선 윗부분은 영웅의 적대자 곧 이두병의 영토인 셈이다. 앞에서 말했듯 영웅의 시간 그래프는 영웅의 영토 그래프이기도 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프상에서 선을 따라 일어나는 사건들과 인물의 배치는 선 아랫부분 다시 말해 영웅의 영토의 줄어들고 늘어남에 따라 결정된다. 영웅의 영토와 아닌 곳을 가르는 선에서 영웅 조웅은 인물들을 만나며 이 인물들과의 결합을 통해 영토의 모습을 결정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럼 영웅의 영토 그래프 상에서 영웅의 영토가 나타나는 모습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영웅의 영토는 그래프의 아랫 부분이다.

영웅의 영토는 몰락전, 몰락후, 준비, 전쟁, 회복후라는 5단계로 간단하게 나뉘볼 수 있다. 이 5단계는 다시 영웅이 영웅의 힘의 구비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구분된다. 그것은 영웅의 힘을 갖지 못한 몰락전, 몰락후와 영웅의 힘을 구비한 준비, 전쟁, 회복의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 영웅의 영토 5단계는 실제로 영웅의 힘을 어느 만큼 구비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몰락하여 천지간에 홀로 남은 영웅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뒤덮을 힘을 가져야 하며 영웅의 영토란

결국 이 힘의 구비 여부에 따라 나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A-B-C에서 조웅은 조정인의 아들로 태어남으로 인해 불안정하나마 아버지 조정인의 영토를 자신의 영토로 가질 수 있었다. 영웅의 영토는 천하의 거의 전부이다. 하지만 아버지 조정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영웅의 영토는 사실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인 명목상의 것일 뿐이다. 어린 영웅은 영웅의 힘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C-D-E-F에서 한번 몰락하자 그의 영토는 아예 없어져 버린다. 명목상의 영토가 현실화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명목상의 영토마저 사라져 버린 영웅은 곧바로 극빈층 중의 극빈층인 거지가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영웅의 영토는 거지가 가질 수 있는 그만큼만 남아있다. 그만큼이 영웅이 가진 힘이기 때문이다.

F-G-H에서 그마저도 못하고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영웅의 영토는 이제 이 세상엔 없다. 하지만 그의 영토는 세상을 뒤덮을 힘을 가진 세외고인 월경대와 철관도사와 인연을 맺고 그들의 힘을 전수받으면서 역시 세상을 뒤덮을 힘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세상 안에는 그의 영토가 없다. 영토는 없지만 힘은 가졌기에 그래프의 선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한다.

H-I-J-K에서 영웅은 전쟁을 통해 자신의 영토를 키워나간다. 위국의 위기 극복, 송태자 구원, 황성으로의 진격과 이두병 생포에 이르는 3단계를 통해 영웅의 영토는 결국 천하 전체에 이른다. 영웅이 가진 영웅의 능력이 세상 안에서 3단계를 거치며 점점 커져 천하 전체를 영웅의 영토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영웅에 적대하는 자들은 흔히 영웅의 무용을 빚내주기 위한 소모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적대자의 등장은 영웅의 영토와 관련이 있다. 영웅이 이들 적대자를 하나하나 물리칠 때마다 영웅의 영토가 점점 넓어져간다. 그에 따라 적대자도 좀더 강력한 자들이 등장한다. 그들이 가진 영토를 영웅이 흡수하면서 자신의 영토를 넓혀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서번왕을 퇴치하고 위국을 구원하여 근거지를 마련한 영웅이 황성으로 진격하면서 만나는 좌장군 장덕, 승상 최탄, 일대 삼형제 등은 영웅의 영토가 점점 넓어져감에 따라 점점 강력한 상대가 요구되는 상황에 부응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이들을 패배시킬 때마다 영웅의 영토는 그만큼 넓어진다.

K-L은 앞단계에서 급속도로 넓어져가던 영웅의 영토가 고정되는 단계이다. 영웅의 능력은 세상을 모두 뒤덮는 것이므로 영웅의 영토 또한 세상 모두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영웅은 황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웅은 황제의 아랫단계

에서 만족한다. 그래프상으로 보면 마지막 위를 남겨두고 멈춘다. 이것은 영웅의 영토가 모종의 조정을 통해 확장을 멈춘 것을 의미한다. 이점은 아마 다른 소설과 다른 영웅소설만이 가진 가장 뚜렷한 고유한 특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영웅의 영토 그래프가 나타내는 각 단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웅의 영토와 영웅의 힘이라는 두 가지가 서로 섞여 작품의 각 단계를 결정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이 논의를 이어받아 영웅의 몸이라는 같지만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기로 한다. 이때 영웅의 몸은 생물학적 몸이자 영웅의 힘이자 동시에 영웅의 영토이기도 하다.

그래프 상에서 영웅의 몸을 확인해 보면 어린시절인 왼쪽은 허약한 몸이고 오른쪽은 강대한 몸을 가졌다. 한편 그래프의 아래쪽은 허약한 몸이고 위쪽은 강대한 몸이다. 영웅은 자신의 몸의 상태에 따라 부딪치는 상황이 각기 다르며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다르다.

A-B-C에서 왕부인과 영웅 조웅은 과부이자 아홉 살 어린이라는 허약한 몸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좌승상 조정인의 가족으로 황제가 비호하는 막강한 정치적 몸을 가지고 있다. 왕부인은 자신의 동생이 사랑의 자리에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아무리 막강한 정치적 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몸을 자신이 주체적으로 쓸 수 없으면 결국 자신의 것이 아니다. 『조웅전』의 첫부분은 묘한 이질감을 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영웅의 주체적 몸과 객관적 몸의 불일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조웅전』이라는 작품은 첫부분에서 설정된 이 두 몸의 불일치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주체적 몸과 객관적 몸의 불일치가 몰락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몰락 후의 상황을 결정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강력한 객관적 몸이 주체적 몸의 허약함을 보충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몸의 허약함에 맞추어 객관적 몸이 허약한 쪽으로 작품이 진행된다.

C-D-E-F에서 몰락한 후 두 모자에게 맨먼저 찾아오는 것은 생물학적 몸의 허약함이다. 왕부인은 실제로 개가나 능욕이라는 생물학적 몸에 대한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영웅 조웅은 자신의 몸조차 지키지 못한다. 이들은 먹을 것조차도 해결하지 못해 거지가 되며 거짓 중노릇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층 체험은 바로 하층의 몸에 대한 체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물학적 몸에 대한 위협은 F에서 월경대사를 만나 극복된다. 우선 먹을

것, 잘 곳의 위협에서 해방되며 동시에 천경사라는 절과 중들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 생물학적 몸의 허약함을 극복한다. F-G-H에서는 월경대사와 철관도사에게 무술과 도술을 배우면서 영웅의 몸을 가지게 된다. 영웅의 몸이란 천하를 덮는 힘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천하를 가진 이두병보다 더 강한 몸을 가져야만 이두병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체적 몸과 객관적 몸이 모두 허약한 상태에서 먼저 주체적 몸을 강력하게 만든다. 하지만 아직 객관적 몸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불일치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작품이 진행되어 나가는 방향이다.

H-I-J-K에서 영웅의 영토는 넓어지고 군대는 더 강해져 간다. 이것은 영웅의 객관적 몸이 점점 더 강대해져가는 모습이기도 하다. K-L에서 결국 천하가 영웅 자신의 몸이 되었다가 모종의 조정의 과정을 거쳐 서번왕이 됨으로써 서번을 자신의 몸으로 만든다. 이것은 주체적 몸의 강력함에 따라 객관적 몸이 극단적으로 팽창하다가 결국 조정의 과정을 거쳐 서번왕으로 정착되는 과정이다.

2. 인물 특징

앞절에서 영웅의 영토 그래프 상에서 면의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영웅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에 대해 잠깐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그래프상에 面으로 구현된 영웅의 영토 위에서 결정되는 인물의 특성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⁶⁾

이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이두병의 영토와 조웅의 영토이다. 누가 무어라고 해도 『조웅전』은 조웅과 이두병의 싸움이 작품의 주제이다. 하지만 『조웅전』은 조웅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므로 이두병은 몇 번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두병은 특별한 능력도 공적도 없이 그저 자신의 당파가 조정을 장악한 덕분에 찬탈에 성공한 왕망형 권신이라서 조웅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두병이 국가기구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지극히 강해 보이다가 정작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사로잡히고 마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때 조웅과 이두병의 대결은 가운데 선을 타고 흐르며 전개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절에서 말했듯이 이 선은 영웅의 영토와 이두병의 영토를 가르는

6) 필자는 「조웅전의 인물형상」, 『한국언어문학』 82호, 한국언어문학회, 2012.에서 이미 『조웅전』에 나타난 인물형상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여기에서는 위 논문에서 다룬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인물들을 다루어보았다.

선이다. 그리고 둘 사이의 세력의 소장에 따라 선의 위치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다양한 사건과 인물의등장이 가능해진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중인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아버지의 부재, 곧 조웅과 아버지 조정인의 관계이다. 조정인은 작품 처음에 잠깐 나왔다 곧바로 자살해 버린다. 따라서 영웅소설 『조웅전』은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남은 여자와 아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기도 하다. 『조웅전』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강력한 모티프로 작동한다. 한테 문제는 다른 유형의 작품에 비해 『조웅전』에서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 특이하다는 것이다. 『조웅전』에서 조웅의 아버지 조정인은 작품 속에서 부재하지만 동시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

영웅은 초반에 몰락 후 혼자 버려졌다가 나중에 구원받아 차츰 자기 세력을 형성하여 결국 이두병 정권을 전복하는 데 성공한다. 한테 진짜로 혼자 버려지는 것일까? 작품의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 이 질문은 우스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짜로 영웅 조웅은 혼자 버려지지 않는다. 그의 뒤에는 시도때도 없이 그의 아버지 조정인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사실 조웅은 조정인과 굳게 결합되어 있으며 끝내 조정인의 선을 벗어나지 못한다고도 할 수 있다.

작품 초반부 어린 조웅은 조정인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황제의 기대를 받는 중요한 지위를 누린다. 부재한 조정인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몰락하는 것도 조정인의 아들이지 조정인이 아니다. 어느 마을에 투숙했다가 도적에게 쫓겨 절망상태에 빠진 왕부인을 구원하는 것도 조정인의 선정비이다. 월경대사와의 인연은 조정인의 사후 조정인의 화상을 그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위왕은 조정인의 친구이며 그 이후 조웅은 무엇보다 충신 조정인의 아들로 불린다.

이렇듯 조정인은 처음에 조금 나오다 말지만 그 작중 역할은 누구보다도 크다. 사실 『조웅전』은 조웅과 이두병의 대결이 아니라 조웅을 앞세운 조정인 대 이두병의 대결이라고 해야 옳은 측면도 있다. 영웅이 실세하여 세상의 밑까지 떨어졌다가 아주 세상밖으로 나가버렸을 때도 조정인의 세력은 비록 흩어진 채로이긴 하지만 세상 곳곳에 존재한다. 영웅이 다시 세상에 나와 활동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모으는 것은 실은 조정인의 세력을 다시 규합하는 것이다.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웅이 잃어버린 선 위쪽의 면에는 여전히 영웅을 기다리는 힘과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것은 바로 조정인이 남긴 것이라는 것이다. 이

것은 영웅이 다시 세상에 다시 나섰을 때 자신의 영웅적 힘 뿐만 아니라 대의명분에도 의지하게 되는데 이때 대의명분은 바로 조정인의 아들이라는 데에서 나온다. 이것은 이때 영웅 편에 서있는 당시 백성들의 정서 뿐만 아니라 작품을 읽는 독자들의 심정적 동조까지도 말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두병은 자신의 영토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허약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조웅은 그저 조정인의 대리인이나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 영웅은 그래프 위 선을 따라가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영웅을 도와주는 여러 힘 중 조정인의 힘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딱 한 곳에서는 조정인의 힘이 영웅의 힘을 제어하고 조정한다. 그것은 이두병을 생포하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 때이다. 영웅의 힘과 세력은 온 천하를 덮으며 모든 것은 영웅의 힘으로 만든 것이다. 영웅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심지어 황제조차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영웅의 힘을 조정하고 제어하는 가장 큰 힘은 의외에도 조정인의 것이다. 조웅은 조정인의 아들로 행세했기 때문에 쉽게 송태자의 밑에 자신을 위치짓는다. 조웅은 아무리 영웅이긴 하지만 그가 규합한 세력은 조정인의 것이기에 특히 그러하다. 이렇게 조정인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조웅의 활동과 힘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 『조웅전』의 인물 배치에서는 그래프 위의 선을 타고 상층인물과 하층인물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어 작품의 편폭을 크게 해주고 있다. 왕부인과 조웅이 도망하면서 만나는 여인, 여승, 도적 등이 그들이다. 그 외 두 사람이 중으로 변장하고 걸식하고 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러하다.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래프 아랫부분은 사회 하층부이고 윗부분은 상층부이다. 왕부인과 조웅은 아래로 떨어져 그래프 아랫부분을 유랑하면서 하층부의 세계를 경험한다. 두 사람은 다시 상층부로 올라가지만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다. 역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영웅에 대한 심정적 동조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프 전체로 보면 선을 따라 움직이는 영웅은 그래프의 위아래를 오르내릴 때마다 그 자리에 맞는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프의 맨 아랫부분에는 세외인과 하층인이 존재한다. 점점 위로 갈수록 위왕, 서번왕, 중급 적장, 상급 적장을 만나다 마지막에는 이두병을 만나게 된다. 『조웅전』은 사실은 그래프가 면과

선이 위아래로 구분되듯이 작중 사회의 상하층을 마치 평면 위에 그리듯이 그리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인물에 있어서 드러남과 숨음의 문제이다. 조웅은 주인공이므로 항상 드러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가? 조웅은 몰락 후 사회적으로 숨은 사람이다. 드러나면 그는 죽는다. 따라서 그는 작품상 활동에서는 드러난 사람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숨은 사람이다. 이 둘 사이의 괴리가 주는 긴장감이 실제로 작품 내부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이끌어가는 긴장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긴장이 바로 그래프 위의 선에서 구현된다. 따라서 이선은 항상 떨리는 긴장으로 충만해 있어 『조웅전』의 재미를 한껏 더해주고 있다.

조웅과 마찬가지로 드러나 있지만 숨은 사람들이 있다. 사회 하층부에 있을 때 만난 여인, 도적, 월경대사, 철관도사 등이 그러하다. 송태자와 그를 따르는 충신들도 마찬가지이며 군사를 모은 왕시랑이나 강백도 마찬가지이다. 저세상에서 이세상으로 잠깐 다시 나온 황장군도 마찬가지이다. 요컨대 작품 후반부 조웅의 군세가 제법 강성해지기 전까지 인물과 사건은 작품상 드러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숨은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미묘한 긴장과 압력, 그만큼의 활력을 가지고 있다.

IV. 나가기

이상으로 『조웅전』을 대상으로 하여 영웅의 시간 그래프와 영웅의 영토 그래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위에서 구현되는 사건과 인물에 대한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측면들은 그동안 영웅소설의 인물을 다루면서 거의 다루지 않는 측면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 대한 시각을 열어주는 것은 그동안 문학 연구에서 도외시 되었던 그래프라는 위상기하학의 측면이다. 앞으로 이러한 시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래프라는 것은 결국 작품에 대한 극단적인 단순화 작업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작품에는 수없이 많은 분위기와 그만큼의 다양한 빛깔들이 존재한다. 그래프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측면에 대한 해석은 상당부분 놓치게 된다. 하지만 어떤 연구시각도 결국 작품의 한 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래프를 사용하는 연구의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한편 가능한 연구의 부분도 명확하게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래프를 써서 작품을 보았을 때 장점 중 하나는 『조웅전』이 얼마나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작품 내부에 끌어들이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웅 조웅이 그래프 상에서 위아래로 흘러다님에 따라 각각의 위치에 맞는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된다. 『조웅전』이 재미있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논의를 종결지으면서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말했던 독자들의 꿈과 소망에 대해 말해보기로 한다. 독자들이 『조웅전』에 열광한 것은 한 마디로 조웅이 조선영웅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웅은 신계와 인간계를 두루 다니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개인적 영웅이 아니다. 그는 『삼국지』나 『수호지』의 영웅처럼 고통받는 민중을 위하여 현재제를 전복하고 새세상을 열어보이려는 구원자이다. 하지만 그는 유비나 송강처럼 패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유비나 송강이 아니라 『서유기』의 손오공과 같은 개인적 돌파력으로 세상을 깨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진 영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새세상을 자신이 가지지 않고 송태자에게 바치고 신하로서 자리를 찾아가는 겸손한 영웅이다.

19세기 이래 새세상이 도래할 기미가 보이자 민중들은 새세상을 맞이해줄 영웅의 도래를 열광하였다. 세상에는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다녔다. 하지만 구원자는 곧 오는 존재이지 이미 온 존재가 아니다. 민중은 이에 영웅소설을 지어 자신들의 옆에 온 구원자를 상상했다. 충신의 아들로 태어나 난신적자에게 고통받고 하층으로 떨어져 온갖 고생을 다한 끝에 결국 무술과 도술을 익혀 자신의 복수와 세상의 복수를 함께 하는 영웅이 그것이다. 하지만 온다는 구원자 정도령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갖기 위해 오지만 영웅소설의 영웅은 모든 것을 되찾아주기 위해 오는 영웅이다. 이것이 영웅소설 『조웅전』의 조웅이 보여주는 조선영웅의 모습이다.

민중이 이러한 영웅을 얼마나 소망했는가는 이 글에서 보듯이 영웅의 행적을 그래프라는 면과 선으로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정형화된 형태로 만들어냈다는 데서도 볼 수 있다. 열망의 강도는 단순화의 강도와 같다. 이 글에서 굳이 그래프라는 위상기하학적 방법을 써서 영웅소설 『조웅전』을 분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이 글에 “한국의 고전구조 시론”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경일남, 『조웅전의 가상회 화소 수용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85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65-86쪽.
- 김도환, 『고전소설 군담의 확장방식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0).
- 김현양, 『조선조 후기의 군담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4).
- 박일용, 『영웅소설의 유형변이와 그 소설사적 의미』, 서울대 석사논문 (1983).
- _____,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출판부, 1985).
- _____, 『군담소설의 구조와 작가의식』, 『한국고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새문사, 2005).
- 신태수, 『군담소설에 나타난 공간과 영웅의 관계』, 『국어국문학』 131 (국어국문학회, 2002.9), 283-315쪽.
- 안기수, 『영웅소설 조웅전의 게임 스토리텔링 연구』, 『어문논집』 46 (중앙어문학회, 2011), 57-89쪽.
- 엄태웅, 『방각본 영웅소설의 지역적 특성과 이념적 지향』, 고려대 박사논문 (2011).
- 윤경수, 『조웅전의 신화적 수용 양상』, 『한성어문학』 19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00), 151-172쪽.
- 이강엽, 『군담소설 연구방법론』, 연세대 박사논문 (1993).
- _____, 『군담소설 서사구조론의 전개와 연구방향』, 『한국고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새문사, 2005).
- 이승희, 『조웅전과의 만남과 상상력 교육』,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이용진, 『고전소설 조웅전의 에듀게임(Edu-game)화 방안연구』,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태학사, 1995).
- 전성운, 『조선후기 장편국문소설의 조망』 (보고사, 2002).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조시중, 『조웅전의 작품구조와 그 수용적 의미』,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7).
- 최기숙, 『영웅소설 서사체계의 발전적 변모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3).

ChoUng-Jeon, as Seen Hero's Time and Hero's Territory Graph

—An Essay on Korean Classic Structure—

Kim, Yong-Cheol

The fictional process of ChoUng-Jeon, an Korean hero novel, can represent the line and surface of a graph. On this graph, plot and characters appear in order. This graph is a Hero's Time and Hero's Territory Graph.

This graph displays a curved line. It goes below and then goes up. This curve displays hero's fall and restoration. Hero and the world fall at the same time. And hero builds strength and relieves the world. Required time is ten years. In ten years the world delays the perishment and waits for hero's relief.

Hero's time graph displays a trial and preparation and messianic hero in turn. The messianic hero is a fundamental form. The heroic time displays a stage of fall-trial-preparation-restoration-peace time in turn.

Hero's time graph is Hero's territory graph, too. The part below central line is hero ChoUng's territory. This territory is in proportion to ChoUng's heroic strength. This territory represents hero's Mom. Hero's Mom repeats the process of discord/accord of subjective/objective. In this process, Hero's Mom drives ChoUng-Jeon forward.

The characters appear on the stage in this graph. The characters represent three characteristics. First, Father's absence. Second, crossing appearance of upper/lower class. Third, swinging appearance of exposing and disposing characters

Key Words: A Hero Novel, ChoUng-Jeon, Hero, Hero's Time, Hero's Territory,
Graph, Messianic Hero, Hero's Mom, Father's absence, Exposure
and Disposure

필자 E-Mail: bishma@hanmail.net (김용철)

투고일: 2013년 1월 20일/ 심사완료일: 2013년 2월 1일/ 게재확정일: 2013년 2월 8일